

단품 표시로 주문 과정 오해 “불친절 대응 등이 문제 키워”

진단 / 갈치요리 '바가지 가격' 논란 왜?

제주관광과 관련한 고물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타깃은 갈치요리다. 한 관광객이 SNS에 통갈치 1마리 조림이 16만원이었다는 인증 글을 올리자 바가지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급기야 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31일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주 관광이 비싸다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 갈치구이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단품 5만원부터 세트 요리 22만원까지

본지 확인 결과 도내 식당의 갈치조림 가격은 단품 표시의 경우 6만~7만~8만원, 갈치구이는 5만~7만~8만원선이 많았다. 대·중·소로 표시된 경우 갈치조림 대는 7만5000~7만8000원, 중은 6만~6만5000원, 소는 4만~5만2000원 가격대가 주류였다. 갈치구이는 대 8만원, 중 6만원, 소 4만원이 많았다. 인원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한 한 식당은 4인 기준 갈치조림이 7만2000원, 3인은 5만4000원, 2인은 3만6000원이었다. 다른 식당들은 3인분 갈치조림 가격이 6만5000원, 8만원 등으로 다양했다. 2인 기준으로 5만5000원에 파는 식당도 확인됐다. 갈치조림 세트를 4인 12만원, 3인 9만5000원, 2인 6만9000원에 파는 음식점도 있었다. 한 음식점은 통갈치구이 세트값이 특대 15만원, 4인 12만원, 3인 9만5000원, 2인 6만9000원이었다. 문어통갈치조림을 4인 20만원, 3인 15만원, 2인 10만원에 팔거나 문어통갈치조림·구이세트를 5인 기준 22만원, 4인 16만원에 판매하는 식당들도 파악됐다.

갈치요리가 세트로 만들어지고 문어 등과 결합하면서 가격이 뛰는 경향을 보였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갈치요리가 비싸다는 논란과 관련해 “원래 갈치란 생선 자체가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며 “어떤 음식을 먹을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갈치는 생선 중에 비싼 편으로, 크기와 보관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냉동 갈치 10kg 위판단가는 25만3000원이다. 전년(22만1000원)보다 14.5% 올랐다. 19마리로 씨알이 굵은 갈치들이다. 사이즈가 작은 갈치 33마리를 냉동한 10kg은 11만3000원으로 훨씬 싼다. 특히 빙장 갈치는 10kg(19마리) 가격이 43만5000원에 달했다. 작은 크기의 빙장 갈치 10kg(33마리)은 20만3000원으로 큰 갈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씨알 좋은 갈치 1마리가 위판 단계에서 최고 2만2895원에 팔린 것이다.

옥돔 1kg(2~3마리) 값은 2만7000원이었다. 참조기는 13kg(135마리)이 49만7000원이었고 씨알 작은 13kg(165마리)은 26만6000원에 팔렸다. 비싼 참조기 1마리는 3681원꼴이다.

▲문제는 단품 표시...“불친절이 논란 키워”

갈치요리가 고가 논란에 휩싸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메뉴와 달리 단품 표시 등으로 주문 단위가 없거나 통일되지 않아 인원에 맞춘 주문 과정에서 오해를 사기 십상이란 점이다.

도내 갈치요리 음식점 중 20~30% 정도가 단품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주문 단위별 적정 가격 제시, 1인 메뉴 개발 등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음식은 값이나 맛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님 문제나 불만 제기에 대해 가게 측의 불친절 대응 등이 문제를 키운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면에 계속

김현중 기자 tazan@samdailbo.com



러브인 제주 '고향에 갑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와 KCTV제주방송(대표 공대인)이 주관하는 'JDC 러브인 제주, 고향에 갑니다' 고향방문단이 2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국제가정문화원(원장 임정민)과 다사랑봉사단(단장 박정규)이 후원하는 이번 방문단은 28일까지 필리핀에서 이주한 이주결혼여성의 친정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임창덕 기자 kko@samdailbo.com

제주도 올해 첫 추경 도의회서 145억 삭감

건강주치의 '0원'...버스 준공영제-종합스포츠타운 원탁토론회 등 감액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145억원 넘게 삭감됐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제437회 임시회 7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경안'을 사정해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익)는 지난 22일 오후 제43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올해 본예산(7조5783억원) 대비 2194억원(2.9%)이 늘어난 7조7977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1회 제주도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 결과 세출 예산 항목에서 총 145억6971만8000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정 없이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예결위의 계수조정 규모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5개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감액된 72억원가량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오는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제주도가 중점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예산 18억2564만6000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건강주치의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 도내 노인(65세 이상)과 아동(12세 이하)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예결위는 제주도와 복지부의 협력이 완전하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밖에 버스 준공영제 운영 15억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실현방안 원탁토론회 운영 3000만원 등의 예산도 감액됐다.

올해 첫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은 교육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감액 없이 부대의견이 달린 채 원안 가결됐다. 도의회

는 '202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가결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비롯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41개 안건을 의결했다.

김동건 기자 kdj@samdailbo.com

제주골프호텔

가성비 만족
신철한 서비스
편리한 교통

신익코스(수목원 근처)

제주시 과원북4길 97
예약문의 064.748.5700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공동체 조성]

가치있는 돌봄을
제주가 **같이** 하는

제주가치돌봄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서귀포시민 누구나

생활 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 일시재가 • 방문목욕
- 식사지원 • 동행지원 • 문동지도

주거 편의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 방역소독 • 간편집수리
- 대청소 • 안전편의시설 설치

문의

제주가치돌봄상담콜 1577-9110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